

순창, 농촌유학생 유치 도내 1위

도시민 대상으로 한 유학생 모집 결과 최종 41명 확정

도시민들의 농촌유학이 인기가 높아지며 인구 유입의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올해 농촌유학지로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이 급부상하고 있다.

군은 22일 도시민을 대상으로 한 유학생 모집 결과 최종 41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보다 두 배 이상 증가한 수치로, 농촌유학 거주시설 조성과 유치활동 등에 군 차원에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은 결과라고 풀이된다.

앞서, 군은 지난해 12월부터 유학생

을 모집하고 신청자를 대상으로 농촌유학 운영학교 주변 41개소 거주시설 방문 및 면담을 거쳐 31명을 신규 농촌유학생으로 최종 선정했다.

신청자는 지역별로 서울 9명, 경기 9명, 광주 7, 기타 6명이며, 이는 도내 시·군중 가장 많은 유학생을 유치한 것으로, 이로써 지난해부터 농촌유학 중인 학생 중 연장을 신청한 인원 10명을 포함해 총 41명이 농촌유학에 참여하게 된다.

군에 따르면, 올해부터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해 농촌유학 모집 시기를 연

2회로 확대해 2학기에 한 차례 더 유학생을 모집할 계획이며, 농촌유학 운영학교도 지난해 5개소에서 올해 8개소로 확대한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군은 차별화된 특성과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교육경비를 학교별로 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하고, 거주시설 확보 및 유학생 지원 등 유학생 가족들이 안정적으로 지역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순창군의 경우 2023년 전북특별자치도 농촌유학 가족체류형 거주시설 조성 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총사업비 30억원을 확보했으며, 올해 안으로 인건면에 14세대 주거시설을 조성할 방침이다. 또한, 팔덕면에는 지방소멸 대응기금 25억원을 들여 8세대 규모 주거시설을 올해 말까지 조성 계획이며, 적성면에도 30억원을 들여 9세대 규모의 주거시설을 25년도까지 조성하여 농촌유학에 안정적인 거주시설을 제공할 예정이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순창군이 농촌유학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얻어 농촌유학 1번지로 거듭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풍성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안정적인 거주환경을 조성하여 더 많은 농촌유학생이 순창군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군은 농촌유학생의 증가와 다양한 농촌유학 시설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해 지난 1월 농촌유학T/F팀을 새로 신설하여 농촌유학 업무를 전담 추진하고 있다. /순창=이양원 기자



농촌유학지로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이 급부상하고 있다. (사진=순창군청 제공)

남원시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위·수탁 협약 체결

남원시-전북대 산학협력단

남원시는 22일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 협력단)과 남원시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체결은 지난 1월 민간위탁 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협력단을 위탁 운영기관으로 선정했으며, 3월부터 5년간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위탁 운영할 계획이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주요 시설에는 통합놀이체험실, 장난감도서관, 시간제보육실, 프로그램실 등이 있으며, 저출산 극복을 위한 지역사회 육아거점기관으로서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지역사회의 행복한 육아 문화 구축을 위해 운영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영할 계획이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주요 시설에는 통합놀이체험실, 장난감도서관, 시간제보육실, 프로그램실 등이 있으며, 저출산 극복을 위한 지역사회 육아거점기관으로서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지역사회의 행복한 육아 문화 구축을 위해 운영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군, 취약계층 응급환자 이송비 지원

순창군은 응급의료 안전망 구축으로 주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취약계층 응급환자 이송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순창군 관내 의료기관

에서 응급환자가 전라북도 내 및 광주권역 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된 경우, 응급차량(의료기관 또는 민간이송업체 구급차) 이용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이송일 현재 순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소아·

청소년(0~18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이며 지원 금액은 1건당 최대 15만원이고 이송일로부터 60일 이내 보건의료원 원무팀으로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하면 된다.

지원 기간은 2024년도 예산 소진 시까지이며 자세한 이송비 지원 사항은 순창군보건의료원(☎63-650-5321)으로 문의하면 된다. /순창=이양원 기자



임실군이 오는 24일 전북특별자치도 시대를 맞아 도민 모두의 희망을 담아 '제43회 필봉정월대보름굿' 행사를 개최한다. (사진=임실군청 제공)

임실, 필봉정월대보름굿 '얼쭈'

군, 전북특자도 출범 축하 도민 안녕·풍년 기원... 오는 24일

임실군이 오는 24일 전북특별자치도 시대를 맞아 도민 모두의 희망을 담아 '제43회 필봉정월대보름굿' 행사를 개최한다.

강진면 필봉마을에서 개최되는 이번 필봉정월대보름굿은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축하하고, 도민 모두의 안녕을 기원하는 의미를 담아 '취청정 밝은 달, 희망으로 용솟음치다'라는 주제로 열린다.

또한 필봉마을에서 행해져 오던 마을굿과 함께 한 해의 복을 액을 털어내고, 새해의 풍년과 안녕을 기원한다.

필봉정월대보름굿은 기국을 시작으로 당산제와 가가호호를 방문하여 각 가정의 안녕을 기원하는 마당밭이굿, 채굿, 호호굿, 풍류굿, 영산굿 등의 앞굿과 설장고, 잡색놀이, 소고춤, 재능기 영산굿, 노래굿, 대풍굿 등 뒷굿이 이어진다.

또한, 관람객들의 한 해 소망을 담은 소지가 달린 달집을 활활 태워 하늘로 올려보내는 달집태우기를 재현한다. 달집을 태우고 나면 다시금 새로운 해를 맞이하는 대동놀이 곳곳으로 관객

과 함께 어우러지는 푸진 곳곳이 열린다. 군은 이번 행사를 준비하면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대보름 행사 관련 화재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점검하고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한 가운데 진행할 예정이다.

임실필봉농악보존회 양진성 회장은 "갑진년 새해에 펼쳐지는 제43회 필봉정월대보름굿 축제에서는 필봉마을의 안녕과 풍요를 기원하던 전통적 세시풍속인 정월대보름의 원형을 만날 수 있을 것"이라며 "전북특별자치도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도민 모두의 희망이 용솟음치며 넉넉하고 희망찬 갑진년을 맞이하시길 기원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심 민 군수는 "올해는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한 특별한 해인 만큼, 전북의 발전과 도민들의 뜨거운 열정을 담아 행사가 치러질 것"이라며 "이번 정월대보름굿이 일상에 지친 심신을 위로하고 지난 액운을 날려 보내 올해는 가정과 사회에 활기가 넘치면 좋겠다"고 말했다. /임실=진종영 기자

임실군, 문화관광해설사 신규양성 교육대상자 모집

임실군이 관광객들에게 양질의 해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문화관광해설사 신규양성 교육대상자 2명을 모집한다. 응시 자격은 공고일 기준(2월 21일) 임실군에 주소를 둔 자로서, 문화·역사에 대한 기본적인 소양을 갖추고 지속적인 활동이 가능한 군민이라면 누구나 응시할 수 있으며, 한국사 관련 자격증 소지자, 유사 해설 활동 경력자 등을 우대 선발한다.

접수 기간은 오는 29일부터 3월 2일까지로 응시지는 지원 신청서 등 필수 서류를 갖추어 임실군청 관광치과

관광기획팀으로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E-mail(qkgustj11@korea.kr)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군은 응시자에 대하여 1차 서류전형과 2차 면접심사를 거쳐 3월 중 최종합격자를 선발할 계획이다. 최종합격자는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주관하는 신규양성 교육을 수료하고, 3개월의 현장 실무 수습을 거쳐 정식으로 문화관광해설사의 자격을 부여받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임실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임실=진종영 기자

지역 소식통

남원 춘향제 기간동안 춘향무도회 진행

남원시에서는 오는 5월 10일부터 '춘향, COLOR愛 반하다'라는 주제로 제4회 춘향제가, 남원의 아름다운 관광자원과 예촌, 요천둔지 일원 및 사랑의 광장 일대에서 그 가장 화려한 막을 올린다.

춘향제는 고전소설 '춘향전'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공연과 예술, 문화축제로서 한 주 동안 진행,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이 펼쳐진다. 춘향제 기간에 춘향과 몽룡의 이야기를 재현해 중점을 둔 2,000벌의 한복을 대여해 주는 '춘향무도회' 행사가 특별하게 진행, 관람객들은 자신만의 한복을 선택하여 입고 춘향 무도회에 참여해 다양한 행사를 즐길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참여자들은 한복의 매력을 체험하면서 동시에 춘향전의 세계를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될 것이다. 또한 참여자들은 직접 사진 촬영 이벤트에 참여하고, 가족, 친구, 연인들과 함께 재미있는 한복 코디를 연출하며 즐거운 추억을 남길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 기회도 제공된다. /남원=김기두 기자

임실군, 운암면 생활개선회 역량강화 과제교육 실시

임실군이 운암면 생활개선회의 역량 강화 및 농촌지역 여성 리더 양성을 위해 지난 21일 운암면사무소 회의실에서 20여 명의 회원들을 대상으로 과제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에서는 농작업 안전 재해예방 및 압파 목걸이 만들기, 당면 영농기술 및 탄소중립 실천 교육이 진행되어 회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성육분 운암면 생활개선회장은 "이번 교육은 역량을 강화하고 회원 간 결속력을 다지는 유익한 시간이었다"며 "올해도 생활개선회가 다양한 활동을 펼쳐 농촌 여성의 권익 향상과 삶의 질 향상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운암면 생활개선회는 운암면의 대표적인 여성농업인 조직으로서 선진 농촌현장 체험 등 지역 여성농업인의 전문 견문을 넓히고 전문 능력 배양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임실=진종영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엔 치즈

벨기에 출신 지명된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N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N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